

News

은성수 "코로나 피해기업 이자상환 유예 연장할 듯"

한국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 "오늘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야기를 나눴다...혼자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만기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지주 회장들도 현 상황을 잘 알고 있다...제2금융권과도 이야기해 나가겠다"

2차 코로나 충격 대비하는 은행들

이데일리

23일까지 KB금융과 하나금융이 2분기를 포함한 올해 상반기 실적 발표...코로나19 여파로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두 금융사 모두 양호한 실적
주목할 점은 은행들은 여전히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 점...2차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경기 충격을 대비하는 모습

하나금융, 상반기 순익 1.3조원...중간배당 주당 500원

연합인포맥스

하나금융그룹, 상반기 누적 연결당기순이익 1조3천446억원을 23일 공시...2분기만 보면 당기순이익은 6천87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4%, 직전 분기 대비 4.7% 각각 늘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총당금을 적립했는데도 비(非)은행과 글로벌 부문이 실적을 이끌었다고 하나금융지주는 설명

네이버·카카오 금융감독 만나... 당국 "가능성 열어두고 검토"

조선비즈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의 금융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금융당국이 이들 기업을 금융그룹 통합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면서 금융 계열사를 소유한 빅테크를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

외국계 보험사 脫한국 가속...라이나생명 매물로 나온다

매일경제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의 모회사인 미국 시그나그룹이 최근 한국 라이나생명 지분 100%를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매각주관사로 골드만삭스를 내정
지난해 말 기준 순자산 가치는 1조6,752억원으로, 지난해 영업이익 4,946억원, 당기순이익 3,509억원을 기록...RBC 비율도 작년 말 305.14%로 우수한 편

코로나궤 비대면 바람에도 설계사 한껏 늘린 한화생명 왜

데일리안

한화생명이 올해 들어 전속설계사를 1,000명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비대면 영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분위기 속에서도 대면 조직을 눈에 띄게 키우고 나섰다는 점에서 이례적
한화생명이 전속설계사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보장성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한 것으로 해석...저축성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장 내용이 어려워 대면 영업의 역량이 중요

펀드자금 98% '깡통업체'에 넣은 옵티머스...5천억 회수 어려울듯

연합뉴스

펀드 자금(5천235억원 · 지난 1일 평가액 기준)의 98%를 사업 실체가 없는 비상장 업체의 사모사채에 투자..."권리관계가 불투명한 자산이 다수라 회수 가능성도 작을 것"
씨피엔에스(2천52억), 아트피파라다이스(2천31억원), 라피크(402억원), 대부디케이에이엠씨(279억원) 등인데, 이들 모두 옵티머스 임원 등이 관리하는 업체들

아시아나항공 M&A '노딜'로 가닥, SPA 해제 수순 돌입

블로터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거래가 끝내 노딜(No Deal)로 가닥... 거래 당사자들은 SPA(주식매매계약) 해제 수순에 착수...실상 M&A 무산으로 봐도 무방
업계에 따르면 인수 주체인 HDC현대산업개발과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거래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노딜 이후 상황에 대한 대비 작업에 착수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